

역사를 일깨운 시 ①

김정란

풀

- 김수영 -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정란 _ 시인, 상지대 교수 rourou@hanmail.net

이 시는 김수영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날짜는 1968년 5월 29일, 김수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짜는 6월 15일이다. 이 시를 쓴 지 약 보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마치 유언처럼 쓰여진 이 시의 이미지처럼, 그는 바람을 일으키며 들이닥치는 자동차 앞에 ‘드러누워 버린’ 것이다.

이 시를 두고 무수한 해석이 난무해 왔다. 그것은 좋은 시의 운명이기도 하다. 좋은 시는 그러한 수많은 해석을 통해 풍부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좋은 정신적 자양이 된다. 많은 평자들이 ‘김수영 문학의 극점’이라고 평하는 이 시는 이른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으로 양분되어 있는 이 땅의 문인들 모두에게 강력한 매혹을 행사해 왔다. 그들은 이 시를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은 욕망에 저항하지 못했다.

리얼리즘 진영에서 이 시의 ‘풀’은 외부의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이미지였다.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 진영은 그 해석을 반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 이 시의 근간을 주술적 환상으로 이해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마저 있다. 김수영을 김수영으로 만들어준, 유명한 ‘온몸으로 밀고 나가기’의 시학이 명령하는 바의 실존적 결단을 피하고 싶다는 어떤 근본적인 거부감 같은 것이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 시를 위협하기 짝이 없는 실천의 영역에서 이른바 ‘시적 자율성’이라는 안전한 영역으로 피신시키고 싶어하는 문학적 무의식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시를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뽑아냄으로써 자신들의 문학적 알리바이로 삼고 싶어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리얼리즘 진영의 해석은 이 시의 섬세한 문학적 요소들을 무작스럽게 걷어내고 어떤 이데올로기의 선전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섬세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이 시인을 배반하는 해석이다. 김수영은 시의 실천적 측면을 힘주어 강조한 시인이기는 하지만, 결코 시를 정치적 선전물로 여기지는 않았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언어의식은 당대의 어떤 시인들보다 첨예한 것이었다. 이 시는 리얼리스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리얼리스트들은 리얼리스트들대로 김수영의 모더니스트적 면모를 보고 싶어하지 않거나 애써 무시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나는 이 시 안에는 그 모든 해석들을 감당하는 힘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 모든 해석들은 모두 맞고 모두 틀린 것처럼 보인다. 물론 나 자신이 이제 덧붙이려 하는 해석도 그런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 무수한 해석에 또 하나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문득 들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실존의 맥락 안에서 한 편의 뛰어난 시를 그 실존을 더욱 깊어지게 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읽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권리 같은 것이 아닐까. 잘 쓰여진 한 편의 시는 뛰어난 다른 예술작품들이 그렇듯이 한 공동체의 공통 자산이며, 그것은 생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참조물이 된다. 더군다나 그 시가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이 마치 무슨 불온한 행동이기라도 한 듯이 여겨지는 사회 안에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시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 시가 68년의 그 유명한 김수영 vs 이어령의 논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그 해 4월에 부산에서 열린 문학 세미나에서 그 논쟁의 귀결로 '시여, 침을 뱉어라' 라는 유명한 시론을 발표한 직후에 쓰여졌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시를 죽죽 뽑아 내는 다작 스타일이 아니라 일 년에 몇 편 정도 써내는 과작 스타일이었다. 그것은 이 시인이 영감에 의지하기보다는 생의 구체적 맥락 안에서, 시가 쓰여질 무렵의 모든 실존적 맥락의 응결점 같은 것으로 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가 신들린 듯이 여러 편의 시를 연속적으로 뽑아냈던 때는 4·19 혁명 직후의 짧은 빛나는 도약의 기간을 빼고는 없다. 이 시는 김수영이 살아 있었더라면, 어쩌면 제2의 도약기의 입구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시는 서로 충돌하는 맥락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면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한번 더 도약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실존적 확신, 운명에 대한 적극적 수납, 그 사이를 자유롭게 그러나 동시에 실존의 한계를 껴안으며 통과하는, 고단하고 아름다운 구도자/혁명가의 모습이 읽힌다. 그의 뻑뻑하던 혀는 부드럽게 풀려 있다. 그가 좀더 오래 살아남았다 라면, 우리는 그 부드러운 혀에 실린 전혀 다른 시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꾸라졌다. 3공화국의 어두운 아스팔트 위에,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며 드러누운 채.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내게 타살처럼 여겨진다.

김수영의 문학적 전환기는 4·19 혁명이었다. 초기의 관념적 모더니즘은 4·19를 지나면서 힘찬 실천적 모더니즘으로 단번에 변모한다. 그는 이승만을 직설적으로 야유하며 그에게 자유의 확신을 가져다준 4·19를 칭송한다. 우리는 과도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그 무렵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4·19로 인해 흥분했던 것만큼 5·16 쿠데타에 절망한다. 4·19에 그토록 열광했던 김수영은 기이하게도

5·16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김수영 평전을 쓴 시인 최하림에 따르면, 김수영은 5·16 이후 27일만에 쓴 시 「격문」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의 몸부림도, 마지막의 양복도, 마지막의 신경질도, 그리고 증오도 굴욕도 깨끗이 버리고 나니 시원하다”라는 구절이 김수영이 5·16에 대해 언급한 전부라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쿠데타 직후 대엿새 동안 온다간다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머리를 박박 깎고 돌아온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에 대한 그의 반응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폭력 앞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반응은 6·25전쟁 와중에 인민군에게 의용군으로 납치되었다가 두 차례의 탈출을 감행했고, 그러다가 국군에게 붙잡혀 무섭게 얻어맞았던 경험이 가져다준 원시적인 공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제수용소에 수감될 당시에 김수영의 정강이는 썩어서 상처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올 지경이었다고 한다. 원치 않는 납치로 인해 끌려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빨갱이’ 취급을 당했던 당시의 기억이 ‘반공을 국시로 하고...’ 운운하는 쿠데타군 앞에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들이 이념이 다른 상대방 포로를 죽인 다음 시체를 토막내어 변소에 던져 버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다. 이념의 광기에 빠질 때,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던 것이다. 그는 군사정권과의 직접 투쟁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엄청난 좌절감의 원인이 되었던 듯하다. 그는 군사정권 하에서 어떤 지식인의 직업도 가지지 않는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식인의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일체의 지식인의 직업을 거부한다. 그는 그 대신 닭을 기른다. 지식인

으로서의 삶에 침을 빨듯이, 병아리 똥을 갈기듯이. 돈이 없어서 절절 매면서도 그는 지식인의 직업으로부터 죽어라 도망쳤던 것처럼 보인다. 무서워서 싸움을 포기한 자는 이미 지식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는 자학의 회로에 자신을 집어넣고 죽어라 두들겨판다. “나는 형편없는 저능아이고 내 시는 모두가 쇼이고 거짓이다.” 그러나 김수영은 그 자학의 회로를 통해 우리 나라 많은 지식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허무주의의 알리바이로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윤리적인 자기 징벌의 형태로 철저하게 양식화한다.

『풀』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환희와 좌절을 동시에 노래한다. 환희가 컸던만큼 좌절도 크다. 혁명의 열망은 고스란히 그의 내면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쿠데타군의 총과 칼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한 열망이었다. 그는 「격문」에서 ‘버린다’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쓴다. 그 되풀이되는 ‘버린다’는 ‘버릴 수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1연의 표현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수동성이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수동적으로 ‘눕는다’. 많은 평자들은 이 장면이 바람의 들이닥침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민중의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일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의 존재가 그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는 바야흐로 들이닥치는,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외적인 힘의 도래를 상징하고 있다. 많은 평자들은 이 연의 시제가 다른 연과 달리 과거시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이미 ‘일어났던 사건’임에 주목한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저며 보면, 이 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우선 우리는 시인이 ‘풀이 바람에 나부끼다가’ 라고 쓰지 않고 ‘나부껴’ 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풀은 수동적으로 ‘나부끼다가’ 결과적으로 눕는 것이 아니라, ‘나부껴’ 눕는다. 즉 어쩔 수 없이 당하다가, 하는 수 없이 드러누운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면서, 바람의 맥락 위에 실려 바람과 함께 눕는 것이다. 이 해석은 곧 이어지는 ‘드디어’ 라는 부사로 의미론적으로 보강된다. 이 연에서 방점이 찍히는 것은 ‘눕는’ 행위가 아니라 ‘드디어 우는’ 행위이다. 만일 바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할 수 없이 드러누운 것이라면 ‘드디어’ 라는 부사는 이해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누웠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이어 이어지는 연에 나타나 있는 역동성(마치 1연의 ‘눕기’의 결과인 것처럼 갑자기 역동적으로 변하는)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눕기’는 이어지는 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어서기’와 분명히 대척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좌절의 포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수영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어했던 것은 좌절하되,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낸다는 것, 즉 말을,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연의 ‘드디어’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드디어’는 기대하던 일의 도래를 뒷받침하는 부사이다. 그것은 와야 하는 일의 달성, 기다림의 끝을 예고하는 부사이다. 김수영이 매혹되었던 하이데거 시학의 용어인 ‘세계의 개진’으로서의 존재를 예고하는 부사. 시인은 풀이 ‘우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 울음은 따라서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드디어’ 터져나온 ‘각성’의 울음이다. 바람의 의미를 이해한 풀, 바람에 ‘나부껴’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익히며, 그 에너지의 의미를 깨

달은 풀. ‘누웠다’는 따라서 수동적인 ‘당함’의 몸짓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된 존재에게 일어난 역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몸짓이다. 역사적 계기의 도래와 그 에너지를 자신의 존재 안에 통합해 넣을 줄 알게 된 민중의 의식 안에 생겨난 변화를 역학적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다. 레비나스의 존재의 도래로서의 사건. 우리는 이 구절을 4·19 혁명에 대해 했던 김수영 자신의 언급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하여간 세상은 바뀌졌다. 무엇이 바뀌졌느냐 하면 나라와 역사를 움직여 가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강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감정이 의외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풀은 한번 ‘이미’ 울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날은 더욱 더 흐려져 한번 더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울기는 다음 연에서 힘찬 저항의 포즈로 이어진다. 이것을 막바로 4·19혁명과 5·16 쿠데타라는 두 차례의 역사의 각성의 계기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러나 김수영이 바람에게 대답하는 풀을 각성한 민중의 알레고리로 여겼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수영이 ‘풀이 누웠다’라고 쓰지 않고, ‘풀은 누웠다’고 절대적 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그 조사는 ‘풀’의 주체성을 강화한다. 이 조사는 발화 맥락의 이니셔티브를 동사가 아니라, 주어 쪽에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존재와 행위를 시간 안에서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눕는’ 풀은 ‘눕는’ 행위에 몰두한다. 풀은 자신의 행위가 주체적 인식 안에 통합된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구절의 과거시제가 지나간 시간의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2연과 3연의 풀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람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 한번 이루어진',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각성의 경험으로 이해한다. 이미 있었던 명료함. 각성한 패배는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중이 기대는 기둥 같은 것이다. 아, 그러나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기둥인가.

2연에 이르면, 역동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풀은 이제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제 풀은 바람의 선수를 친다. 시간차 공격. 이 시간적 엇갈림은 바람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아니, 바람의 힘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의 독립적인 역사적 행동 양식을 따르는 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미 역사적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역사의 이니셔티브를 쟁취한 것이다. 이 행동의 역동성은 빠른 호흡으로 이어지는 현재시제에 실려 더욱더 극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3연에서 보이는 바처럼 좌절은 끊임없이 있다. 날은 여전히 흐리다. 그러나 이미 풀은 수동적으로 눕지 않는다. 그는 주체적으로 눕는다. 또한 눕되, 철저히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발목까지, 발목보다 더 깊은 곳까지 눕는다는 것은, 운명에 저항하되,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수납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길게 보고 길게 걸기. 현재의 맥락에서 나의 저항이 좌절을 불러오는 것이 거의 뻔한 예상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싸우기. 그래, 나는 망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운다. 그것이 운명의 부름이라면 절대적 운명에 순명한다. 적극적 패배. 나는 이런 실존적 태도를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켄세마네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의 태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태도. 풀은 자신의 가장 낮은 조건을 수납한다. 그 낮은 조건의 본질까지 자신의 것으로 통합한다.

그 적극적인 수동성은 기어이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는데까지 나아간다. 풀은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김수영이 죽던 날 밤, 술에 취해서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어떤 소설가와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은 내게 슬프고 의미심장하게 여겨진다. 그가 그 소설가의 차에 대고 발길질을 했다는 사실도. 당시만 해도 '자가용'은 절대적인 부의 상징이 아니었던가. 버스 두 대가 엇갈려 달리다가 버스 한 대가 인도로 뛰어 들면서 김수영의 뒤통수를 들이받았다는 사실도 내게는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두 개의 상충되는 맥락 사이에 끼어 죽었던 것은 아닐까. 물질적 근대화라는 맹목적 질주. 그리고 그것과 싸우다가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던 자들의 신음과 고통. 늑기와 일어서기. 그는 누웠다. 아니다, 눕혀졌다.

그리고 열추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시키면 안경을 쓴 쿠데타 사령관은 총에 맞아 죽은 다음에도 아직도 공동체의 맥락을

휘저으며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풀이 이제 바람보다 빠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 쿠데타 사령관을 신처럼 섬기며, 풀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박정희가 ‘빨갱이 제조’ 주문으로 여겼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처럼 그 마타도어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말을 움켜쥐고 상징조작을 해온 자들의 선동 때문에 그에게 병의(憑依)되어 있다.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풀들을 짓밟는 새로운 다른 바람을 가져오고 있다. 자본이라는 바람. 어떤 풀들은 그 바람 앞에서 눕지도 일어서지도 않고 단순히 흔들린다. 그들의 정신은 흐릿해져 있다. 김수영을 진혼하는 일은 아직도 어렵다. 아직도 ‘우는’ 풀들은 나날의 모욕을 견디어내어야 한다. ~~다~~